

평~창특수! 짝짝~짝!짝!짝!

금융권, '올림픽 마케팅' 활짝

KEB하나, 올림픽체험관에 성화봉송까지
우리카드·비자 협업 기념카드 인기몰이
신한카드 퀴즈이벤트 통해 입장권 증정

금융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이 임박한 가운데, 금융업계가 평창올림픽을 앞세운 상품과 이벤트로 '평창 마케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은행권에서는 공식 후원사인 KEB하나은행의 행보가 눈에 띈다. 최근 서울 을지로 소재 본점 1층 로비에 '2018 평창 동계올림픽&동계패럴림픽 홍보·체험관'을 개관한 데 이어 함영주 KEB하나은행장이 남산서울타워에서 남산 케이블카를 활용한 이색 성화봉송을 실시해 눈길을 끌었다. 또 18일까지 대한민국이 올림픽 종합순위 4위 이내를 달성하면 정기예금 최대 연 2.218%, 정기적금 2.5%의 금리를 제공하는 '하나된 평창'을 판매한다. 함 행장은 "국내에서 열리는 평창올림픽이 역대 올림픽 중 가장 성공적인 대회가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라고 했다.

KB금융그룹과 IBK기업은행은 최근 대한체육회를 방문해 평창 동계올림픽에 출전하는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단에 각각 1억원과 5000만원의 격려금을 전달했다. 윤종규 KB금융그룹 회장은 "평창올림픽의 성공적인 대회 운영과 함께 참가선수 모두가 건강히 대회를 치렀으면 한다"며 "선수들이 흘린 땀방울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했다.

카드사들은 올림픽 월드와이드 파트너사인 비자(VISA)와 협업 마케팅에 나서고 있다. 우리카드와 비자가 협업한 평창올림픽 공식 기념카드는 40만 판매를 돌파했다. 올림픽 공식 기념카드라는 한정판의 소장 가치와 높은 마일리지 적립 혜택이 인기 요인이라는 게 우리카드 측 설명이다.

또 롯데카드는 '비자 롯데카드 웨어러블'을 선보였다. 응원 등 활동성이 많은 올림픽 행사를 고려해 지갑 없이 사용자의 옷이나 몸에 부착해 휴대하기 간편한 것이 특징. 평창올림픽 마스코트 수호랑과 태극기를 모티브로 디자인했으며 스티커형, 배지형, 글러브형 등 3가지 형태로 구성했다.

다채로운 이벤트는 덤이다. 신한카드는 11일까지 '비자X신한카드 평창 이벤트'를 연다. 신한 비자 신용·체크카드를 누적 10만원 이상 이용하고 홈페이지 퀴즈 이벤트에 참여한 고객 중 추첨을 통해 평창올림픽 경기 입장권을 증정한다. 퀴즈는 대한민국 금·은·동메달 개수, 대한민국 최종 순위, 평창 동계올림픽 종합 1위 국가 예측하기 등이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올림픽 기간 내국인은 물론 외국인 관광객의 결제가 큰 폭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국내 마케팅 비용으로 해외 마케팅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며 "그간 수수료 인하 등 악재로 고전했던 것을 '올림픽 결제 특수'로 만회하겠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정정욱 기자 jjay@donga.com







성화봉송 행사에 참석한 함영주 KEB하나은행장이 스케이팅 포즈를 취하고 있다(왼쪽). 비자 롯데카드 웨어러블 배지형(오른쪽 위), 우리카드-비자 협업 평창올림픽 공식 기념카드(오른쪽 아래) 등 금융업계의 평창 마케팅도 한창이다. 사진제공 | 하나은행·롯데카드·우리카드

넥쏘 1회 충전 609km '수소전기차 넘버1'

1세대보다 항속거리 40% 향상 '세계 최대'
충전시간 5분여…첨단 ADAS시스템도 갖춰

현대자동차는 5일 현대 모터스튜디오 고양(경기도 고양시 소재)에서 권문식 부회장 등 현대차 관계자와 자동차 기자단이 참석한 가운데 '넥쏘 미디어 익스피리언스 데이(NEXO Media Experience Day)'를 개최하고 올 3월 출시 예정인 차세대 수소전기차 '넥쏘(NEXO)'의 1회 충전 항속거리를 공개했다.



▲넥쏘(NEXO)

●차세대 수소연료전지시스템 개발로 세계 최대 항속 거리 달성

이날 공개된 넥쏘의 1회 충전 항속거리는 609km로 목표로 했던 580km를 훌쩍 뛰어넘었다. 현재까지 글로벌 시장에 출시된 수소전기차 중 가장 먼 거리를 주행할 수 있다. 이는 1세대 모델이었던 투싼 수소전기차(항속거리 415km, 한국기준)보다 약 40% 이상 향상된 수준이다.

넥쏘의 복합연비는 96.2km/kg(17인치 타이어 기준)이며, 한번에 총 6.33kg의 수소를 충전할 수 있다. 현대차는 최대의 항속거리를 위해 고효율 차세대 수소연료전지시스템을 개발했다. 수소탱크의 수소 저장밀도와 저장용량을 증대시켜 기존보다 더 많은 수소량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충전에 1시간 이상 소요되는 전기차와는 달리 수소차 충전시간은 5분 내외라는 점도 매력적이다.

●현대차 미래 기술력 집약, 차세대 친환경 SUV '넥쏘'

넥쏘는 현대차 3대 미래 모빌리티 비전 ▲Connected Mobility(연결된 이동성) ▲Freedom in Mobility(이동의 자유로움) ▲Clean Mobility(친환경 이동성)을 바탕으로 개발된 미래형 SUV다.

실내 인테리어에는 친환경차의 특성을 살려 대부분의 내장 소재에 바이오 플라스틱, 패브릭, 식물성 도료 등 UL 인증 바이오 소재(UL Cer tified BIO Materials)를 사용했다.

현대차의 첨단 기술력이 집약된 ADAS시스템도 갖추고 있다. 현대차 최초로 운전자가 탑승한 상태에서뿐 아니라, 하차한 상태에서도 주차와 출차를 자동으로 지원해주는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RSPA, Remote Smart Parking Assist)'와 0~150km/h 사이 속도에서 차로 중앙을 유지하도록 보조해주는 '차로 유지 보조(LFA, Lane Following Assist)' 기능 등이 탑재돼 운전 편의성과 안전성을 높였다.

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

자율주행차, 5G로 정보 주고받는다

SKT-교통안전공단, 복수 차량 첫 운행

자율주행차가 5G로 서로 대화하며 달리는 시대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SK텔레콤은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교통안전공단과 5일 경기도 화성 자율주행 실험도시 케이시티에서 2대의 5G자율주행차가 교통정보를 주고받는 '협력운행'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이날 시연에선 2대의 차량이 5G 차량통신 기술(V2X)과 3D HD맵, 딥러닝 기반 주행 판단 기술을 활용해 서로 통신하고 신호등·관제센터와 교통 상황을 주고받았다. 이를 통해 스쿨존·교차로·고속도로 상황 등으로 구성된 자율주행 트랙 약2km 구간을 안전하게 달렸다. 자율주행차는 스쿨존을 인식하고 자동으로 속력을 줄였고, 어린이 모형이 갑자기 차도에 나타나자 급정거한 뒤 어린이 모형이 사라진 것을 확인하고 운행을 재개했다. 고속도로 출구 구간에선 다중 추돌 사고가 발생하자, 앞차가 사고 정보를 뒤따르는 차량과 관제센터에 전달했고 뒤따르는 차는 사고 정보 수신 즉시 속력을 줄이고 주행 차선을 바꿔 사고 지점을 통과했다. 무신호 교차로에서 마주친 두 차량은 5G로 교신하며 통행 우선순위를 정하기도 했다.

복수의 5G자율주행차가 서로 경로·안전을 살피며 협력운행에 성공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금까지는 카메라·센서를 기반으로 일반 차량과 장애물을 회피하며 주행하는 수준의 자율주행 테스트가 진행됐다. SK텔레콤은 이번 시연을 계기로 수십 대의 자율주행차가 협력주행하는 상용화 단계의 연구가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SK텔레콤은 5G통신 기반의 자율주행 기술을 2019년부터 고속도로 등 주요 도로에서 선보일 계획이다.

한편 SK텔레콤은 이날 5G자율주행 세단 외 5G자율주행 전기버스, 5G HD맵 제작차량 등도 선보였다.

김명근 기자

롯데홈쇼핑, 인공지능 기반 스켈터랩스 투자

롯데홈쇼핑이 인공지능 기반 스타트업 스켈터랩스에 직접 투자하며 차세대 유통환경 구축에 대비한다. 양사는 5일 서울 양평동 소재 롯데홈쇼핑 본사에서 투자 조인식을 진행, 4차 산업혁명과 미래 유통환경에 대한 의견을 공유했다. 이번 투자를 통해 지능화된 챗봇을 도입한다는 게 롯데홈쇼핑 측 설명. 이후 음성검색, 고객 맞춤형 추천 서비스도 선보일 예정이다. 이완신 롯데홈쇼핑 대표이사는 "변화하는 유통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인공지능 기술 내재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스켈터랩스와의 협업으로 기술 역량 확보와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서비스를 보편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정정욱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5일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이날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오고 있다. 뉴시스

이재용 부회장, 구속 1년만에 집행유예 석방

항소심서 징역 2년6개월에 집유 4년

박근혜 전 대통령 등에 뇌물을 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집행유예로 석방됐다. 지난해 2월17일 구속된 뒤 약 1년여 만이다.

서울고법 형사13부는 5일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삼성 미래전략실 최지성 전 실장(부회장)과 장충기 전 차장(사장), 삼성전자 박상진 전 사장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재산국외도피와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 등을 무죄로 판단했고, 코어스포츠에 건낸 용역대금과 마필·차량 무상 이용 등 정유라 씨에 대한 승마 지원은 뇌물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 등이 박 전 대통령의 요구로 어쩔 수 없이 뇌물을 제공했으며 승마 지원을 대가로 박 전 대통령에게 청탁을 한 사실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대한민국 최고 정치권력자인 박 전 대통령이 국내 최대 기업집단인 삼성 경영진을 겁박한 사건이다"면서 "다만 박 전 대통령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웠다 하더라도 적법한 행동을 할 거라는 기대 가능성이 없었다고 볼 수 없고, 공무원의 부패에 조력해선 안 된다는 국민으로서의 법적 의무와 삼성그룹 경영진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업계는 이 부회장의 석방으로 비상체제였던 삼성전자의 경영에 변화가 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한 눈으로 보는 경제

5일

코스피지수	2491.75	▼	-33.64
코스닥지수	858.22	▼	-41.25
日 닛케이 지수	2만2682.08	▼	-592.45
中 상하이 종합	3487.50	▲	+25.42
국고채 금리 (3년물, 연%)	2.287	▲	+0.037
환율 (원 · 달러)	1088.5	▲	+8.8
국내금값 (원/그램 g)	4만6711.57	▼	-310.99

오늘의 얼굴

KT&G 차기 사장후보에 백복인 사장 확정



KT&G의 차기 사장후보로 백복인(사진) 현 KT&G 사장이 확정됐다.

사장후보추천위원회는 5일 백복인 현 사장을 차기 사장후보로 선정해 이사회에서 확정했다고 밝혔다. 3월에 열릴 주주총회에서 연임이 결정되면 백 사장은 향후 3년 임기동안 KT&G를 이끌게 된다.

사장후보추천위원회는 "사업에 대한 장기비전 및 전략, 혁신 의지, 글로벌 마인드 등에 대해 심사를 벌인 결과 백복인 사장을 최적임자로 결정했다. 산업 전반에 대한 통찰력을 갖고 지난 3년간 회사를 성공적으로 이끌어온 리더십 측면에서 특히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KT&G의 전신인 한국담배인삼공사 공채 출신 첫 CEO인 백복인 사장은 1993년 입사 이후 26년 동안 전략, 마케팅, 글로벌, 생산·R&D 등 주요사업의 요직을 거치며 다양한 업무 경험을 쌓아 왔다.

양형모 기자

비즈 TALK TALK

● **"아직 기업들에게는 규제가 높게 다가오고 있다"**(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5일 국회 사랑채에서 열린 전국상공회의소 회장단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규제 완화 등 기업 입장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입법해줄 것을 요구하며)

● **"최저임금 인상으로 부담을 느낄 수 있는 생활밀착형 업종 종사자들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겠다"**(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5일 충북 청주 SK양궁장 주유소를 찾아 최저임금 인상 현안을 논의하며)

데이터 경제

직장인 설 예상 경비 평균 44만원

구인구직 매칭플랫폼 사람인이 직장인 743명을 대상으로 '설 지출 계획'에 대해 조사한 결과, 1인당 평균 44만원을 지출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출금액은 '20만~30만원 미만'(19.5%)이 가장 많았다. 이어 '10만~20만원 미만'(16%), '40만~50만원 미만'(14.3%), '50만~60만원 미만'(12.7%), '30만~40만원 미만'(12.5%), '10만원 미만'(7.3%), '90만~100만원 미만'(6.9%) 등의 순이다. 기혼의 경우, 평균 62만원으로 미혼 35만원보다 1.8배 가량 더 많았다.



편집 | 신하늬 기자